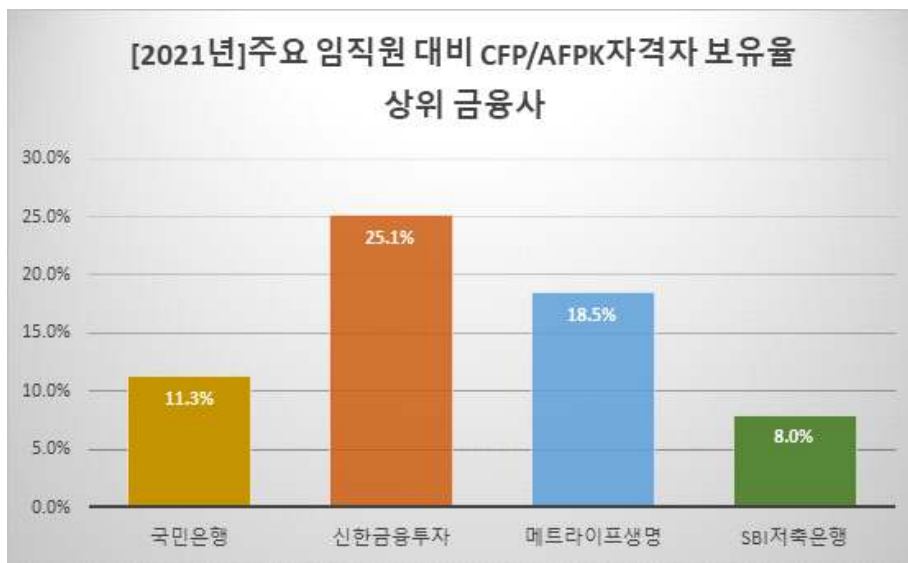


재무설계, 행복한 미래를 여는 현명한 선택 **CFP®** **CFP®** 놀라운 내일을 설계하는

	보 도 자 료		
	보도일 배포일	2022.1.26.(수) 조간 2022.1.25.(화)	
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김지욱 팀장 / 02-3276-7612, jwkim@fpsbkorea.org gio0703@gmail.com			

**제목: 한국FPSB, 금융기관별 재무설계 전문자격 보유 비율 발표
전 금융업권 중 신한금융투자가 25.1%로 선두**



- 금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 자격자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, 신한금융투자, 메트라이프생명, SBI저축은행이 해당 금융업권 내에서 임직원수 대비 자격자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재무설계관련 국제재무설계사(CFP, CERTIFIED FINANCIAL PLANNER)의 국내 인증 및 재무설계사(AFPK,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) 자격 인증을 맡고 있는 한국FPSB(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회장 김용환)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, 2021년 말 기준 금융사별 임직원수 대비 재무설계전문가(CFP 및 AFPK 자격 인증자) 보유 비율이다.

- 이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로는 증권업이 10.5%로 가장 높았으며, 은행업과 보험업이 각각 7%와 5.8%를 나타냈다.
- 금융업권 전체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25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, 은행업권에서는 국민은행(11.3%), 보험업권은 메트라이프생명(18%), 저축은행업권에서는 SBI저축은행(8%)이 가장 높았다.
-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작년 상반기 281명에 비해 6개월뒤인 작년말 636명으로 2배이상 늘어났는데, 한국FPSB에 따르면 고객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회사의 집중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.
-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“회사의 자산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자격취득·유지비용 전액 지원과 더불어 승진 등 인사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.” 고 밝혔다.
- 독립보험대리점(GA) 부문에서는 한국재무설계가 27.5%로 다른 GA의 경우 5% 미만인 것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취득비율을 나타냈다. 한국재무설계 최병문 대표는 “고객의 재무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높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자격보유 비율을 높이고 있다.” 고 밝혔다.
- 한편 한국FPSB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AFPK 자격인증이나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치 못한 시험합격자나 자격정지자의 구제를 위해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인증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절차가 종료되면 금융사별 자격인증비율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금융회사별 임직원 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

(단위:명)

업종	회사명	임직원	AFPK		CFP		AFPK+CFP	
			인증자 수	비율	인증자 수	비율	인증자 수	비율
은행	국민은행	17,180	1,696	9.9%	239	1.4%	1,935	11.3%
	신한은행	14,149	1,166	8.2%	333	2.4%	1,499	10.6%
	경남은행	2,376	178	7.5%	33	1.4%	211	8.9%
	한국씨티은행	3,466	200	5.8%	83	2.4%	283	8.2%
	우리은행	14,421	733	5.1%	233	1.6%	966	6.7%
	NH농협은행	16,184	724	4.5%	214	1.3%	938	5.8%
	하나은행	12,810	553	4.3%	165	1.3%	718	5.6%
	부산은행	3,127	74	2.4%	46	1.5%	120	3.8%
	한국SC은행	4,164	85	2.0%	25	0.6%	110	2.6%
	기업은행	14,048	248	1.8%	83	0.6%	331	2.4%
소계	101,925	5,657	5.6%	1,454	1.4%	7,111	7.0%	
보험	메트라이프생명	627	88	14.0%	28	4.5%	116	18.5%
	삼성생명	5,233	345	6.6%	144	2.8%	489	9.3%
	동양생명	984	61	6.2%	13	1.3%	74	7.5%
	교보생명	3,855	186	4.8%	58	1.5%	244	6.3%
	한화생명	2,701	91	3.4%	21	0.8%	112	4.1%
	삼성화재	5,735	94	1.6%	80	1.4%	174	3.0%
	KB손해보험	3,090	59	1.9%	26	0.8%	85	2.8%
소계	22,225	924	4.2%	370	1.7%	1,294	5.8%	
금융투자	신한금융투자	2,535	597	23.6%	39	1.5%	636	25.1%
	한화투자증권	1,183	217	18.3%	19	1.6%	236	19.9%
	NH투자증권	3,040	376	12.4%	68	2.2%	444	14.6%
	삼성증권	2,606	99	3.8%	146	5.6%	245	9.4%
	KB증권(주)	2,934	206	7.0%	20	0.7%	226	7.7%
	미래에셋증권	3,944	129	3.3%	66	1.7%	195	4.9%
	교보증권	986	30	3.0%	4	0.4%	34	3.4%
	한국투자증권	2,915	72	2.5%	18	0.6%	90	3.1%
소계	20,143	1,726	8.6%	380	1.9%	2,106	10.5%	
제2금융	저축은행	9,791	156	1.6%	17	0.2%	173	1.8%
	새마을금고 ^{주2)}	29,142	417	1.4%	51	0.2%	468	1.6%
	신협 ^{주1)}	17,610	175	1.0%	12	-	187	1.1%
	농축협 ^{주1)}	97,645	572	0.6%	162	0.2%	734	0.8%
	우체국	-	157	-	14	-	171	-
국민연금공단	-	258	-	13	-	271	-	
주요 저축은행	SBI저축은행	602	45	7.5%	3	0.5%	48	8.0%
	OSB저축은행	213	16	7.5%	-	0.0%	16	7.5%
	웰컴저축은행	782	10	1.3%	3	0.4%	13	1.7%
	OK저축은행	921	11	1.2%	1	0.1%	12	1.3%

※ 인증자수 : (2021. 12 기준), 임직원수 : 금융통계정보 자료(2021. 09 기준)

주1) 2021.06 기준 주2) 2017.12 기준

법인독립대리점 설계사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

주요 법 인독립 대리점 (GA)	한국재무설계	291	46	15.8%	34	11.7%	80	27.5%
	키움에셋플래너	980	29	3.0%	6	0.6%	35	3.6%
	피플라이프	4,034	47	1.2%	19	0.5%	66	1.6%
	에이플러스에셋	4,642	31	0.7%	22	0.5%	53	1.1%
	더블유에셋	3,204	22	0.7%	10	0.3%	32	1.0%
	프라임에셋	9,682	30	0.3%	8	0.1%	38	0.4%
	지에이코리아	14,253	24	0.2%	11	0.1%	35	0.2%
소계 ^{주1)}	37,086	229	0.6%	110	0.3%	339	0.9%	

※ 설계사 수 :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 (2021. 상반기 기준)

참조자료. 금융회사별 임직원 수 대비 자격인증자 비율 (2021년도 12월 말 기준)

끝.